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산지서 강해

이전의 영광, 미래의 영광 II

(학개 2장 1 - 23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주춧돌을 놓은 이스라엘은 밖으로부터의 압박과 내부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 15년간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심한 책망의 말씀을 하였고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 성전 짓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는 중 한 달이 채 못 되어 백성들은 다시 낙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을 주시면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곧 세계 나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전 영광 보다 미래에 올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전의 영광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인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짓고 있는 성전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규모는 그 전만 못하지만 이제 짓는 성전은 만민을 위한 집이요, 메시아 왕국의 성전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1. 미래의 영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5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은 금과 은으로 치장한 성전보다 훨씬 더 귀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영광보다 미래의 영광이 훨씬 더 큰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어 그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언약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당신의 영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미래의 영광은 확실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철의 강국 헬라도 로마도 페르시아도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광장해 보이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고, 땅과 바다도 흔들려서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시한 그리스도와 그가 다스리시는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모든 백성들이 금은보석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은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덕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므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전임을 기억하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과거만 생각합니다. 이전의 영광이 찬란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영광이 이전의 것보다 훨씬 큰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지나가신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본 것은 없어질 영광, 희미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은 모세가 받은 영광에 비할 수 없이 귀하고 큰 것입니다.

모세는 정죄하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구원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9절).

다투어 뺏은 평강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이 온전한 것이며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2. 미래 영광에 참여할 자

미래 영광에 참여할 자는 성결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우리에게

고통만 줄 뿐입니다. 이때 우리의 고난은 심화되고 마침내는 좌절하고 맙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찔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띠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12절).

저들의 부정한 마음을 제물이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며 성전을 지으면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제물을 바쳐도 바치는 이가 부정하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현재가 괴롭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13절).

부정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전체가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국가를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밖에서 적이 침략하지 않아도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성결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보다 순종을 할 때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의 현실에 희망이 있게 됩니다.

“곡식 중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으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12차 KIMCHI 신학 세미나 2주 앞으로 다가와

5월 24일(월)부터 6월2일(화)까지 10일간, 오늘 기도로 준비한 KIMCHI 세미나 특별헌금 드려

오는 5월 24일(월)부터 6월2일(화)까지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라오스) 교역자 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되는 제12차 KIMCHI 신학 세미나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KIMCHI 신학 세미나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 중에 마치도록 하기 위하여 매주일 104호 회의실에서 기도회와 회의를 계속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분과별로는 세미나에 사용될 국가별 깃발을 점검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한편 필요한 소품들을 체크하며 세미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교회는 금번 제12차 KIMCHI 신학 세미나를 모든 성도가 함께 참석하는 범 교회적인 행사로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특별헌금을 드리기로 하였다. KIMCHI 세미나 특별헌금은 1구좌를 10만원으로 하고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1구좌 이상씩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1/2구좌(5만원) 1/3구좌(3만원) 씩도 가능하다.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작은 부분이나마 동참하여 우리교회를 통해 세계 각국이 복음화되는 은혜누리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한다.

찬양대원 세미나 열린다

5월21일(금) 저녁 7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우리교회 찬양위원회(위원장 임상헌 장로)는 각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찬양대원들의 재교육을 위해 찬양대원 세미나를 열기로 하였다.

금년 찬양대원 세미나는 오는 5월21일(금) 저녁

7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며 김성남 목사(연세대학교 협동 교목)가 강사로 서게 된다.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한 모든 찬양대원들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글로리아찬양팀 기타 강습 시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606호실에서

글로리아 찬양팀에서는 기타반 강습을 시작하였다. 기타를 쳐본 경험이 있거나 기타를 새로 배워 글로리아 찬양팀에서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여성도들은 누구나 환영한다. 강습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606호실에서 있으며 김영수 집사(김영수 기타교실 원장)가 강의를 담당하게 되며 이번 코스의 회비는 3만원이다.

강습에 참석하는 여성도들은 개인이 사용할 기타와 기타코드가 나와 있는 찬송가를 준비하여 참석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화요 정오음악회 계속된다 5월25일(화)까지

열린교회를 지향하는 우리교회가 성도와 이웃주민들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준비한 화요 정오음악회가 성황리에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강민정 선생(서울교회 I부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를 시작으로 11일(화) - 최주용 선생, 18일(화) - 정경미 선생, 25일(화) - 김정은 선생의 연주가 계속된다. 좀처럼 외부에서는 접하기 힘든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화요 정오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의 참석을 바란다.



12차 KIMCHI 세미나 참가국을 위하여 기도 합시다 -캄보디아편-



1위, 동남아시아 최극빈국, 2만 명당 1명꼴의 의사수준이라는 끔찍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폴포트의 공산통치가 바로 그 이유이다. 폴포트가 세운 공산정권은 단 3년7개월의 통치동안 200만이 넘는 사상자와 30만의 난민을 만들어 내었다. 이때의 학살로 의사와 교사들은 모조리 처형을 당하거나, 국외로 추방을 당했고, 또한 여기서 기독교인들도 90%가 처형을 당했다. 어린이와 병자들, 노약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말라리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이러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살의 규모와 잔학성은 지금도 Killing Field라는 이름으로 대변되고 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 불리우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태국, 라오스, 베트남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했던 캄보디아의 과거의 영화는, 단 한명의 최악의 지도자와, 단 한번 최악의 사상통치로 인해 유아사망률

공산주의라는 발톱이 활쫓고 지나간 지금의 캄보디아는 의사가 부족해 풍토병이 성행하고, 교사가 없어 변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구의 44%는 어린이이며, 나머지 50%는 과부라는 통계는 이러한 사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폴포트라는 상처에 신음하는 캄보디아를 아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임을 현지 선교사들은 역설한다. 인구의 98%가 불교를 믿을 만큼 뿌리 깊은 불교의 역사를 가진 캄보디아에서 기독교가 파고들어갈 틈이 없음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캄보디아인의 아픔을 나누고, 어루만져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러한 상처마저도, 캄보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위대한 예비하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선교사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지에 신학교가 설립되고, 크리스천 기업체의 진출로 또 다른 선교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캄보디아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우선 치안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인데, 개인 총기소지를 금하는 법률이 제정 되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개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시내 전경

인이 총기를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300불 남짓한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운전자를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오후6시 이후로는 바깥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또한 너무도 열악한 경제 사정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병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매춘과 부녀자 납치가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물 속에 빠져있는 아이를 구하려고, 밧줄에 몸을 매고 직접 들어가서 아이를 구출해 주는 사람이나, 뒤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밧줄을 잡아주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아이를 구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분명한 것은 캄보디아 민족을 향한 많은 관심과 기도가 선교사들과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 사실탰다.

오주명(편집부)

어버이주일특집



최은성(초등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박한옥 집사(13교구)

원영애 집사(5교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보세요
막내아들 은성이 입니다. 요즘별일 없이 잘 지내시죠?
저는 하나님과 부모님 보호아래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어버이날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늘 하는 말
인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가장 필요한 것
같네요.

제 생일 5월 6일. 그날은 어머니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
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안 계셨다면 제가 지금 편지를 써드리
지도 못할 테고 좋은 추억거리들을 못 느껴보게 되겠죠.

학교 조회시간에 피아노를 쳤었습니다. 비록 보시지는
못하셨지만 저로 하여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후회는 안 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여 기쁘게 해드릴게요.

저를 낳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낳으실 때의 고통
만큼 아니 그 고통의 몇 배만큼의 기쁨과 행복을 안겨드리
는 은성이 될게요.

편영생~ 어머니를 사랑할 막내아들 은성이 -울림

양호경 집사(13교구)

어머니.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그리고 사랑으
로 평생을 사시다 병환 중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며 옵니다. 시집와
첫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나도 기뻐 하시던 어머니, 당신보
다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인정 많으신 어머니.

며느리 생일이면 내가 좋아하는 약밥을 손수 만들어주
시고, 첫 임신 때 조기 먹고 싶다는 이야기에 당장 시장에
다녀오신 어머니.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고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받기만 하면서도 내 자신이 불편하면 작은 일에
도 투정하고 안 좋은 안색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자신만을 먼저 생각했지요.

병환 중에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그때에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하는 안타까움과 때늦은 후회로 지금에
서야 사무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깊은 사랑을 오히려 부담으로 생각하고 벗어나고만
싶어 했던 자신을 이제서야 후회합니다. 이제 와서야 가정
이 어머니의 희생과 노력 위에 튼튼히 뿌리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나서야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진정
한 가족애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이어가겠
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며느리와와 좋았던 일만을 생
각하시고 아버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세요.

내 마음의 영원한 고향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저희 2남
4녀 바르게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 아버
지.

오월이 되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손주들이 어
버이 날이라고 가슴에 달아주던 카네이션을 떼실 줄 모르
고 흐뭇해하시며 빗바랜 잠바에 온종일 달고 계셨던 아버
지.

가끔 저희가 친정에 내려갈 때면 엄마보다 먼저 우리를
맞으시고 좋은 것 챙겨주시며 기다리셨던 아버지. 얼굴에
는 늘 인자하심과 따뜻한 미소를 간직했던 아버지.

자식들 아무 탈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그저 고마워서
손주들 등을 쓸어주시며 대견스러워 하셨던 아버지. 그렇
게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셨던 아버지는 우리 가슴에 진
한 아픔을 남기고 식도암이란 선고를 받으신 후 몇 개월을
힘들게 그렇게...

병원에 들어서면 반가움에 얼른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어린이처럼 좋아하시며 제 기도소리를 듣고는 더 평온
해하셨죠.

이틀 넘게 병원에 못 들르면 왜 안 오냐며 전화하셨죠.
지금 되돌아보면 그 시간들은 저에게 아버지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며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상함이 또 눈물 내게 합니다.

밤새 임종을 지키던 나는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에 목이
메어 아버지 왜 눈을 못 감으세요.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
씀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그만 힘들어 하시고 그만 고통스러워하시고 세상 근심
미련 걱정 다 버리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데로 평안히 가세
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시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
손 붙잡고 평안히 가세요. 저희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 감
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육체의 모든 생명선들은 끊어졌건만 청각은 미미하게
살아있는지 아버지의 얼굴에 뺨을 비비며 귓전에 부르짖
는 내 음성이 들렸는지 밤새 목석처럼 누워 빛을 잃어가던
아버지의 메마른 눈가에 놀랍게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리곤 몇 분후 숨을 거두셨던 아버지.

아버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오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저마다 꽃을 피우며 푸르름이 눈부신
오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너
무 그립구요. 아버지 지금 그곳에서 부드러운 미소로 우릴
내려다보고 계시겠지요. 보고 싶구나. 사랑 한다 잘 살아라
하시면서...

봄을 스프링이라고 했던가
새삼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운 봄이다.
스프링처럼 늘 새로운 사랑을 풀어내 주시던 그 어머니
가 그리운 그런 봄이다.

5년 전 어버이날을 보내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렇게 주님
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신 내 어머니!

그립고 안타까워 살아계실 적 내 부족함이 이렇게 죄스
럽다니 이제서야 철이 드나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
품을 정리하려는데 늘 주무시던 머리맡 한 귀퉁이 벽에 비
뽀비뽀한 한 줄의 글귀가 떠오른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머니의 이 신앙고백은 며느리의 생일축하 금일봉 봉
투에도 어김없이 적어주셨던 귀하고도 단순한 유산이었
다. 어머니가 넣어놓으신 행주는 어찌 그리도 광채가 날 단
큼 희었던지... 아마도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힘이 실려 그
리도 눈이 부시게 희었던 게 아닐까.

결혼 직 후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난 아들이 집을 비
웠을 때 아들 대신 정겹고 따뜻함으로 돌봐 주시던 어머
니! 어느 날 "오늘은 어찌 찬송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시
며 호통 치시던 내 어머니!

첫 아이를 가지고 서너 달이 지난 어느 날 감기기운이
보인 며느리 콧물을 보시고 행여 후지로 닦다 코밑이 상할
까 손으로 닦아내 주시던 내 어머니! 구역예배가 있는 금
요일이면 며느리 앞세워 가는 예배에도 공지를 가지셨던
그런 내 어머니! 다른 사람들이 우릴 모녀 사이로 봐 준다
며 그리도 좋아하시던 그 어머니가 새삼 그립고 또 그립다.
세상에 그 사랑 보다 더 아름답고 비견할 만한 사랑이 또
있을까? 곁에 살아계실 땐 왜 그 사랑 미처 다 깨달을 수 없
었을까?

눈가가 젖어들어 견딜 수없이 그리운 내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의 힘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그런 환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
고 가신 내 어머니의 사랑의 무게가 너무나도 그리운 그런
5월이다.

이제 살아계신 또 한 분 어머니의 겹겹히 쌓아두신 그
기막힌 사랑의 기도를! 그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기도의
응답을 우린 오늘도 또 그렇게 값없이 받을 준비를 해야겠
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이툰 부대 위문 방문한다

우리교회 비전 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이라크에 파병되는 자이툰 부대를 오늘 (9일) 찬양예배후 방문하고 대학부 연극 공연과 함께 피송예배를 주관한다.

베들레헴 찬양대가 찬양순서를 맡고 위문품과 선금 헌금을 전달한다.

장로가정탐방- 김상철장로 가정편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김상철 장로님은 전 세계를 무대로 각종 활동을 하시느라 항상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시다. 최원자 권사(연약출판사 대표)님 사이에 아들(세호)과 딸(민정)을 슬하에 두고 있다.

지난 1947년 평북 태천에서 태어난 김 장로님은 모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봉사를 항상 열심히 하시는 선친의 모습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고 하신다."

김 장로님은 어려서 신장염을 앓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몸이 퉁퉁 부어서 괴로웠는데 어머니와 함께 부흥회에 자주 가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목사님께 인수를 받던 어느 날 부기가 씻은 듯이 빠져 주변 사람들이 크게 놀라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넘치는 은총을 체험하며 성장한 김 장로님은 대학시절엔 청년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당시 몸담았던 선교단체가 사회정의의 강조하는 분위기여서 신앙이

뜨겁지 못한 시기를 거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87년 집안에서 친척 중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유의 체험을 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따로 부르신다는 것을 체험했다. "그때 저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 주권적 역사를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 구체적인 개입을 하시며 섬세한 인도와 보호, 간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 장로님은 민주화 운동권 세력의 행태나 사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도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다. 주간신문 "미래한국"을 발행해 이번 달 지령 100호를 앞두고 있고, 지난 3.1절에는 서울교회에서 목회자 대성회 행사를 주관 2005년 김정일 공산독재 종식과 2008년 자유민주통일을 이루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성도가 연합해서 북한 라디오 성경 보내기를 기획하는 한편, 탈북난민 보호 운동본부를 운영하며 천백만 명에 이르는 서명을 받기도 했다.

올해 교회 내에서는 탈북 동포들을 양육하는 디아스포라반 부장과 선교부장을 맡으셨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섬기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말씀을 곁에 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신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도 벅차고 어렵습니다."라며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는 김 장로님은 더욱 충성스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고자 오늘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

김민철(편집부)

서울 험시바 남성중창단 자선공연

5월 15일(토) 저녁7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서울교회 대학 청년부 소속 남자 성도들로 구성된 '서울 험시바 남성 중창단'이 자선 공연을 한다. 수익금은 사랑의 집(지체부자유자 시설) 돕기에 사용된다.

-정정-

지난 주 642호 순례자 5면 제 8대집사, 제7대 권사 후보 확정에 관한 기사 중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종다수로 집사50명 권사40명을 선발하게 된다'를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 중 종다수로 집사50명 권사40명을 선발하게 된다'로 고친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9일(주) 자이툰 부대 위문을 위한 예배에서 설교한다. 10일(화) 기독교 학술원 학술상 심사위원회, 13일(목) 장로교 신학회 월례 발표회를 소집한다.
- 이사: 3교구 김경순집사, 강남구 대치4동 934-8 그랜드 빌라 102호, 전화:567-8054
3교구 홍동진, 강선경성도, 강남구 도곡동 럭키A, 102914, 전화:3463-2085
7교구 김준기, 한성은 성도 일산 화정동 옥빛마을 1707-1303, 전화:031-973-9710
- 발표회: 소프라노 김문영 성도(3교구 고운화 권사 자녀) 15일(토) 7:30 예술의전당
- 개업: 4교구 최영자성도 청마루 뷔페 (전화:421-9114)
- 주간 식당 봉사: 안드레남선교회(5월 9일) 베드로선교회(5월 16일)
- 금주의 식사: 이덕준 성도 이경자성도가정, (자녀결혼을 감사하며) 이학주 집사, 이은옥 집사 가정(자녀결혼을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화요정오음악회-

하나님을 찬양함에 내 영혼에 기쁨 있도다

전날 내린 비로 대지가 말갛게 씻겨지고 공기는 한층 청아해진 지난 화요일 정오, 봄 정오음악회가 시작되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서울교회, 대치동 새 성전으로 이사하고 파이프오르간을 봉헌하며 또 달려갈 길을 달음박질하는 중에 화요정오음악회는 수고의 땀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잠시 쉼을 주는 듯 귀한 선물이다.

57개의 스탭, 크고 작은 3900여개의 파이프를 속에는 세상 모든 악기의 소리가 들어있다. 정오음악회의 첫 시간을 장식한 강민정 선생은 플루트, 스트링, 리드(관) 등 다양한 소리를 사용하며 클레랑보의 짧은 7곡의 조곡과 바흐, 막스 레거, 용연을 연주했는데 막스 레거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에 내 영혼에 기쁨이 있도다"를 연주할 때는 청중을 오르간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장엄하고도 화려

한 음색을 사용하며 이날 연주의 절정을 이루었다.

잠시 세상과 단절된 듯한 시간, 소리만 들어도 영혼이 맑아지는 듯한 파이프 오르간의 선율들, 우리만 듣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강남 지역에서 열린 공간으로서 자리 잡아야 할 서울교회는 이 귀한 악기를 이웃과 공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다.

이번 정오음악회는 찬양으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거니와 주민들 뿐 아니라 일에 지친 인근 회사의 회사원들에게도 긴장을 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보자!

허숙(편집부)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에 초청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의 교역자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4. 집사·권사 선택에 하나님의 간섭있도록
5.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